

창조의 비밀을 훑치는 열쇠

멕시코의 혁명적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기 자서전'

장익순
출판기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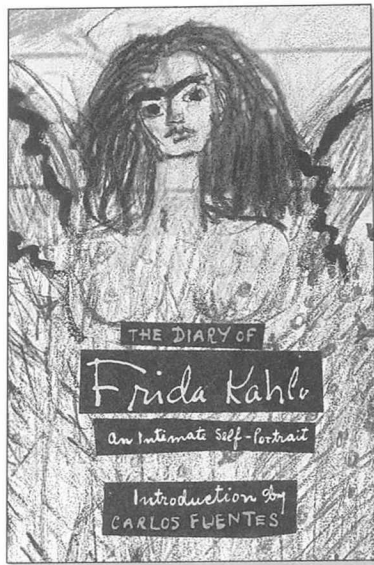
진정한 창조자는 '연금술'의 대가이다. 소가 풀을 뜯어 우유를 만들듯이, 창조자는 세계 주어진 제한된 물질을 빚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문화의 황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금술의 창조력에는 반드시 하나의 충족조건이 있다. 누워 조용히 되새김질하는 위장, 바로 자신만의 비밀 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연금술의 비밀과정이 남의 손을 댔음을 느꼈을 때, 그가 가진 창조의 신비한 힘은 스러져버리고 만다.

일기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방'이다. 일기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창조자는 자신과의 대화와 매혹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공간과 시간을 누구와도 같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 비밀이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날 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상실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물론 요즘처럼 자신의 일기를 자랑스레 공개하는 '자기상실인'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또한 창조의 세계를 엿보는 중요한 열쇠로도 작용한다. '공개'가 아닌 '엿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력의 불씨를 나누어 갖는다. 선배 창조자의 비밀을 훑쳐냄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자극을 받는다. 그러기에 일기는 어두운 서랍에 숨어 있다가 종종 훌륭한 기획자의 눈에 띄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되곤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기, 뉴우튼의 일기 등을 훑쳐보면서 우리는 창조되는 순간의 경이를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획자란 제2의 창조자가 아닐 수 없다.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거나 할까.

삶의 격정과 고통을 남미의 미술적인 리얼리즘과 치열한 페미니즘으로 꽃피운 위대한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세계 - 그녀의 위대한 창조를 일기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행복이다. 유명한 미국 미술전문출판사 아브람스에서는 그녀의 '연금술방'을 책의 형식 속에서 잘 갈무리하고 있다.

진정한 창조자의 일기를 발굴하여 출판하는 일은 그만큼 독서문화가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창조자의 내면을 엿보고 싶은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잠재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엿보기 충동'은 저급한



프리다 칼로의 '일기 자서전' (자료제공 : DRT 에이전시)

속표지를 넘기면 30쪽의 서문이 나온다. 멕시코 문단의 한 기동인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쓴 프리다 칼로의 세계이다.

서문 읽기가 끝나면 한편 가득한 프리다 칼로의 사진과 일기장 표지가 나온다. 작품의 아이디어 소묘와 일상과 시적인 내면의 대화가 뒤섞인 그녀의 일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170쪽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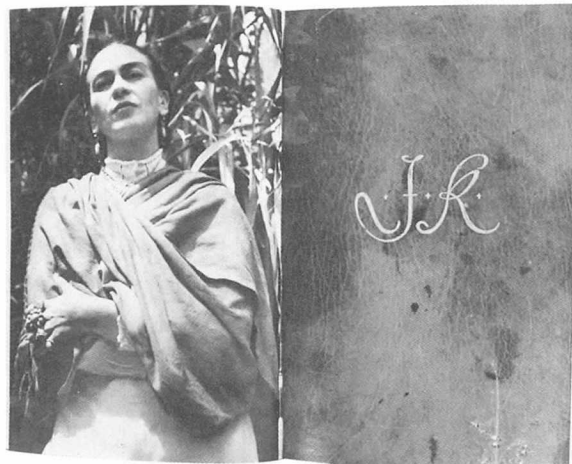
한장한장에는 치열한 멕시코 혁명을 몸으로 살아내온 그녀의 사랑과 고뇌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만년필, 색연필, 수채화 물감으로 얼룩진 그녀의 일기는 멕시코 민중화가이자 남편인 디에고와 그녀의 내밀한 애정과 고통, 작품으로 승화하기 직전의 방향, 그 자체이다.

일기장이 끝나면 일기 해설 - 번역과 상황설명 - 이 90쪽 분량으로 세밀하게 펼쳐져 있다. 해설한 이는 프리다 칼로 전기를 낸 전문 예술비평가 사라 로우.

일기장 한쪽한쪽을 축소하여 보여주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 다음은 5쪽의 연보와 한쪽의 참고자료, 두쪽의 찾아보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관음증이 아닌, 문화 전통의 생생한 가치를 자기화하려는 진화욕구이다. 같이 누릴 만한 '일기 자서전'이 우리 문화계에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돌이켜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출판 기획자들의 게으름 탓이라면 좋겠다.



가로 16cm x 세로 24cm의 크기, 296쪽 분량. 양장본. 책의 편집이 독특한데, 1944년부터 1954년까지, 그러니까 그녀 나이 서른여덟부터 마흔여덟로 죽기까지 십년간 쓴 일기장을

표지부터 그대로 옮겨놓는 형식을 취했다. 책 표지 그림도 일기장 그림 그대로 썼고 뒷면에 쓴 글씨나 낙서가 그대로 배어나오는 일기장이 갈무리되어 있다.

